

장소성을 의미하는 원형적 개념 단어 연구

- 'placeness'와 'sense of place' 등의 사용 정도를 기준으로 -

A prototypical concept word meaning 'placeness' or 'sense of place'

○기 세 황*

Kee, Sehwang

Abstract

In Korea, in the academic world, 'placeness' has been used the most as an English word meaning the concept of '장소성', and 'sense of place' is in second place. On the other hand,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concept of '장소성', which is commonly used outside of academia, that is, in Korea, is translated as 'sense of place' in many cases. This was the sam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sense of place' can be seen as a concept that existed long before the word 'placeness' appeared. As a result, 'placeness' is a word frequently used in Korean academia. And its us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requency of use by year, background and reasons, and detailed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concepts should be covered in follow-up research.

키워드 : 장소성

Keywords : placeness, sense of place

1. 국내 학계에서 '장소성'의 사용

국내에서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주제로 삼은 최초의 연구는 1977년 김광현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Merleau-ponty의 현상학으로 조명한 한국전통건축의 공간론적 장소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LACE" as a space theory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viewed from the phenomenology by Merleau-ponty」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the PLACE'로 번역하고 있는 한편, 오늘날 쓰이는 장소성의 번역어 중 하나인 'sense of place'라는 단어는 1980년 이규목의 대한건축학회 논문인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 Notes on the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a Sense of Place」에서 최초로 쓰이고 있다.

2. '장소성'의 개념적 원어 및 번역어

오늘날 국내 학계에서 '장소성'은 'placeness', 'sence of place' 등으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2024년 3월 21일) 기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에서의 검색 결과를 종합하면 표1.과 같다.

표1.은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 표암건축연구소 소장,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keesehwang@snu.ac.kr)

이 연구는 2023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2023S1A5B5A17084210

서 제목에 '장소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은 각각 712건, 395건에 이른다. 이 중 '장소성' 개념의 영어 번역 단어로는 'placeness'가 압도적인 1위임을 알 수 있다.

표1. 국내 학술 논문에서 '장소성' 개념의 단어 사용 현황

순위	'장소성'에 해당하는 개념	학술논문 수	학위논문 수
1	placeness	464	44
2	sense of place	85	13
3	characteristic of place	9	1
4	spirit of place	6	0
5	concept of place	4	0
총 계	장소성	712	395

이 외에도, '장소성'에 해당하는 개념의 번역된 영어 단어로 'genius loci.' 등을 추가적으로 들 수 있으나(Hong & Park & Im, 2011) 이를 '장소성'에 대응시켜 주제로 삼은 국내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장소성'의 개념적 원어 및 번역어로서 'placeness'와 'sense of place'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장소성'의 개념적 원어 및 번역어로서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placeness'와 'sense of place'의 사용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국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이루어진다. 국내에서의 사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네이버(<https://www.naver.com/>)의 검색 엔진에 남아있는 최근 8년 간의 빅데이터를, 국외에서의 사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글(<https://www.google.com/>)의 검색 엔진에 남아있는 최근 20년 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글은 국제적, 네이버는 국내적인 이슈 및 사용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각각의 대표적인 모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 국내에서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placeness'와 'sense of place'

앞서 2장에서 알아본 '장소성'의 개념적 원어 및 번역어로서 'placeness'와 'sense of place'는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제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표1.이라는 결과는 학술적 용어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것이었다. 반면, 네이버의 검색 엔진 기록으로부터 추출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placeness'와 'sense of place'의 사용도는 아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placeness'보다는 'sense of place'에 대한 검색이 훨씬 자주,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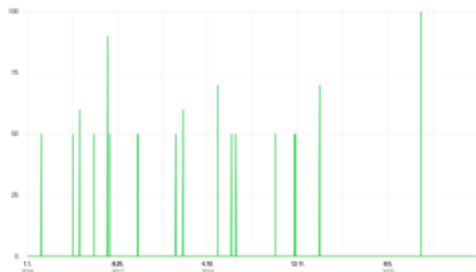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8년 간 네이버에서 'placeness'의 검색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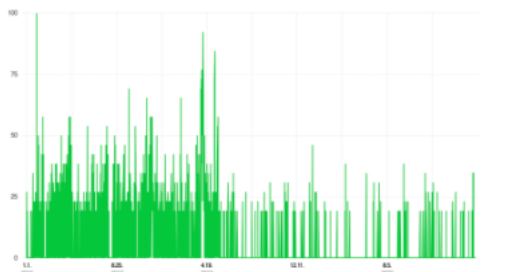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8년 간 네이버에서 'sense of place'의 검색 정도

3.2 국외에서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placeness'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의 학계에서 '장소성'과 같은 개념으로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단어인 'placeness'의 국제적, 일반적(학술적 개념이 아님을 의미함) 검색 기록 빈도는 그림 3과 같다. 최근 20년을 기준으로, 2005년 6월에 갑자기 급등한 검색어로서, 그 이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2010년 10월 이후 가끔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어권에서 'placeness'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확정지을 수 없으나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Place and Placelessness』(1976)의 출간 이후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책에는 'place'와 'placelessness'의 개념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한편, 'placeness'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나 해석이 서술되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placelessness'의 반의어로서

'placeness'라는 단어를 간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출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최근 20년 간 구글에서의 'placeness' 검색 정도

3.2 국외에서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sense of place'

그림 4를 참고할 때, 'sense of place'는 2004년 이전부터 존재해 왔을 것이며, 이 개념은 등장한지 20년이 충분히 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국제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데에 비해,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오히려 'sense of place'보다 'placeness'가 더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최근 20년 간 구글에서의 'sense of place' 검색 정도

4. 결론

이상 '장소성'의 개념적 원어 및 번역어로서 국내에서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placeness'와 'sense of place'의 사용도에 대해 학술적-일반적으로, 그리고 국내적-국외적으로 그 현황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인터넷 대형 검색 포털에서의 검색 기록을 참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학계에서는 '장소성' 개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placeness'가 제일 많이 쓰여왔으며, 'sense of place'는 2순위이며 1위와 2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계가 아닌 곳, 즉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성' 개념은 'sense of place'로 번역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sense of place'는 'placeness'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있어왔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placeness'는 국내에서 학술적 개념에 한해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사용도나 연도별 사용 빈도,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이들 개념의 세부적인 차이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다루도록 한다.

참고문헌

1. Hong, S. & Park, J. & Im, S. (2011). A Study on the concept of 'Sense of place' for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Journal of the Korea Landscape Council, 3(1), 14-29.